

## WEBVTT

00:00:09.199 --> 00:00:12.242

여러분, 안녕하세요?  
김종회입니다.

00:00:12.379 --> 00:00:20.332

오늘은 신경숙의 소설 풍금이 있던  
자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.

00:00:31.634 --> 00:00:34.456

풍금이 있던 자리  
어떤 자리일까요?

00:00:34.614 --> 00:00:36.777

여러분, 풍금이 어디에 있나요?

00:00:37.010 --> 00:00:39.746

풍금은 초등학교 교실에 있었죠.

00:00:40.578 --> 00:00:44.313

지금 초등학교 교실에는  
풍금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.

00:00:44.338 --> 00:00:49.151

그렇지만 오늘날 중년 이상의  
세대가 기억하는 것은

00:00:49.411 --> 00:00:51.777

초등학교 교실에 풍금이 있고

00:00:51.802 --> 00:00:55.322

초등학교 선생님은 누구나  
풍금을 칠 줄 알았습니다.

00:00:55.745 --> 00:00:57.187

풍금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은

00:00:57.212 --> 00:01:00.302

추억의 자리, 기억의 자리  
이런 뜻이죠.

00:01:00.634 --> 00:01:04.116

그런데 여러분, 이 소설 속에는  
풍금이라는 단어가

00:01:04.141 --> 00:01:06.395

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.

00:01:06.808 --> 00:01:08.320

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

00:01:08.345 --> 00:01:11.585

이것은 풍금에 대한 소설이 아니다,  
이 말이죠.

00:01:11.610 --> 00:01:15.021

풍금이 있던 자리에 대한  
이야기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01:15.891 --> 00:01:21.984  
소설을 쓴 신경숙은 1963년에  
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.

00:01:22.154 --> 00:01:24.833  
서울예전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

00:01:24.858 --> 00:01:29.477  
문예중앙에 겨울 우화라고 하는  
중편을 발표하면서

00:01:29.502 --> 00:01:32.467  
1985년에 등단을 했습니다.

00:01:33.734 --> 00:01:38.781  
이 작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 
1993년에 출간한

00:01:38.981 --> 00:01:44.900  
풍금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 작품이  
포함되어 있는 단편집이었죠.

00:01:45.673 --> 00:01:49.624  
80년대를 흥미했던  
리얼리즘 소설과 역사 소설

00:01:49.649 --> 00:01:53.849  
또 노동 문학과 민중 문학의  
계열을 잇는 작품들이

00:01:53.998 --> 00:01:57.246  
힘을 잃어가고 있던 그런 때죠,  
90년대라고 하는 것은.

00:01:57.271 --> 00:02:00.933  
그러니까 80년대가 이념 중심의

00:02:00.958 --> 00:02:04.051  
또는 운동 개념 중심의  
이런 시대였다면

00:02:04.349 --> 00:02:06.445  
90년대로 넘어가면서  
상황이 달라집니다.

00:02:06.470 --> 00:02:12.795  
왜냐하면 문학이 주적으로 생각했던,  
주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던

00:02:13.202 --> 00:02:17.402  
비민주적 정치 행태가  
후퇴하기 시작하고

00:02:17.778 --> 00:02:22.164  
어쨌건 군부 정권의 연장선상에  
있다 할지라도

00:02:22.189 --> 00:02:25.902  
선거를 통한 정권이  
나타나기 시작하면서

00:02:25.927 --> 00:02:28.692

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  
90년대입니다.

00:02:28.717 --> 00:02:33.489

그래서 90년대를 다양성의 시대  
또는 다원주의의 시대

00:02:33.514 --> 00:02:34.949

이렇게 부릅니다.

00:02:35.387 --> 00:02:42.278

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던 자리에  
풍금이 있던 자리와 같은

00:02:42.303 --> 00:02:44.309

이런 작품이 등장함으로써

00:02:44.373 --> 00:02:50.110

90년대의 새로운 소설,  
개인적 신변의 이야기가

00:02:50.135 --> 00:02:58.322

주를 이루는 그런 전혀 다른 방식의  
소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신호탄.

00:02:58.347 --> 00:03:02.850

그것이 곧 신경숙의 소설  
풍금이 있던 자리였습니다.

00:03:05.394 --> 00:03:10.121

그래서 90년대 초반을 여성 작가의  
시대, 여성 문학의 시대

00:03:10.146 --> 00:03:11.679

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.

00:03:11.704 --> 00:03:14.827

여성 작가들이 이 부분에  
강세를 가지고 있었고

00:03:15.803 --> 00:03:18.996

박완서나 오정희를 비롯해서

00:03:19.021 --> 00:03:22.613

젊은 작가 공지영이나 배수아 같은  
이런 작가들

00:03:23.308 --> 00:03:29.121

또는 임인숙이나 은희경 같은  
이런 작가들이

00:03:29.766 --> 00:03:33.966

역량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 
그런 시기였습니다.

00:03:36.106 --> 00:03:41.039

풍금이 있던 자리는 공동체의  
이야기에서

00:03:41.064 --> 00:03:48.218

개인적인 이야기로 전화되는,  
달라지는 그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.

00:03:48.338 --> 00:03:52.332

신경숙 작품은 내용상의  
새로움뿐만 아니라

00:03:52.357 --> 00:03:56.912

기술 형식에 있어서, 문체에 있어서도  
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.

00:03:57.093 --> 00:04:02.110

거대 담론, 거대 서사가 더 이상  
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

00:04:02.673 --> 00:04:07.727

미시 서사, 미시 담론이라고 하는  
개인적인 문제, 내면적인 문제

00:04:07.752 --> 00:04:11.743

이런 것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 
문체가 아니라

00:04:11.768 --> 00:04:19.714

미세하고 아름답고 조직적이고  
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

00:04:19.739 --> 00:04:23.176

이런 형식의 문체가 적합했던 것이죠.

00:04:23.201 --> 00:04:25.935

신경숙은 이런 문체를 사용했습니다.

00:04:27.091 --> 00:04:31.782

표절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 
여러 논란에 휩쓸려 있습니다만

00:04:31.807 --> 00:04:38.645

실제로 신경숙은 충분히 자기 자신의  
좋은 문체를 가진 작가입니다.

00:04:40.364 --> 00:04:44.321

평자들은 신경숙의 이 풍금이 있던  
자리라는 작품을 두고

00:04:44.346 --> 00:04:51.340

80년대의 종결과 90년대의 시작을  
알리는 문학사적 위치

00:04:51.586 --> 00:04:55.599

여기에 문체의 참신함이라고  
하는 것으로써

00:04:55.624 --> 00:04:58.068

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.

00:04:58.330 --> 00:05:02.892

그 이후에 신경숙이 계속해서 쓴  
작품들 또는 작품집.

00:05:02.917 --> 00:05:11.123

이렇게면 깊은 슬픔, 외판 방,  
기차는 7시에 떠나네, 바이올렛,

00:05:11.148 --> 00:05:15.680

아름다운 그늘,  
오래 전 집을 떠날 때,

00:05:15.705 --> 00:05:18.150

강물이 될 때까지, 딸기밭.

00:05:20.197 --> 00:05:26.750

이런 작품들이 연이어서 창작되는데  
많은 문학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.

00:05:26.775 --> 00:05:31.276

그러니까 이 시기에  
신경숙 작품에 대한 평가가

00:05:31.301 --> 00:05:34.613

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걸  
볼 수 있습니다.

00:05:34.961 --> 00:05:37.853

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

00:05:37.878 --> 00:05:42.653

또는 객관적 평가의 목소리도  
적지 않습니다.

00:05:43.794 --> 00:05:50.537

이렇게면 신경숙의 작품에서 마치  
그 시대에는 사랑만이 필요했느냐?

00:05:50.562 --> 00:05:53.265

그런 낭만적인 시각만이 중요하냐?

00:05:53.526 --> 00:05:57.258

또 너무 서정적인 이야기를  
가지고 감으로써

00:05:57.283 --> 00:06:03.350

이렇게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 
여성의 자기 주체성 같은

00:06:03.938 --> 00:06:09.818

이런 결여된 공백 같은 것은  
어떻게 할 것이냐?

00:06:10.008 --> 00:06:13.508

이런 평가들도  
따라나오기도 했습니다.

00:06:15.314 --> 00:06:20.032

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
품금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 이 소설은

00:06:22.099 --> 00:06:24.700

신경숙의 대표적인 작품이고

00:06:25.177 --> 00:06:31.695

한 시대의 구분점에 해당하는

그런 작품입니다.

00:06:32.203 --> 00:06:36.127

외판 방이라고 하는  
그 이후에 나온 작품은

00:06:36.533 --> 00:06:39.719

신경숙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데

00:06:41.076 --> 00:06:44.417

이 시기에 나왔던 다른 작품들과  
더불어서

00:06:44.442 --> 00:06:46.747

한 개인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

00:06:46.772 --> 00:06:50.972

시대와 어떻게 상호  
조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

00:06:51.212 --> 00:06:52.766

좋은 작품이었어요.

00:06:54.095 --> 00:06:55.481

풍금이 있던 자리.

00:06:55.506 --> 00:07:04.125

이 소설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단한  
주목을 유발할 만한

00:07:04.150 --> 00:07:05.368

그런 것이 아닙니다.

00:07:05.393 --> 00:07:08.863

그냥 시시껄렁한 연애 이야기  
같은 것이예요.

00:07:09.692 --> 00:07:15.173

그런데 왜 이 작품이 그렇게  
주목을 받았느냐 하면

00:07:16.970 --> 00:07:21.534

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 
한 나이 든 처녀의 이야기인데

00:07:21.709 --> 00:07:25.841

그 남자와 함께 외국으로  
도망가기로 했는데

00:07:25.866 --> 00:07:28.613

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 
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

00:07:28.638 --> 00:07:30.738

각자의 삶을 산다, 이런 얘기죠.

00:07:30.763 --> 00:07:32.317

평범한 이야기죠.

00:07:32.342 --> 00:07:38.615

그런데 이 소설의 밑바탕을

흘러가고 있는

00:07:38.640 --> 00:07:39.953  
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.

00:07:39.978 --> 00:07:45.225  
그것은 이 여자 주인공의  
어렸을 적 이야기

00:07:45.250 --> 00:07:49.782  
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 
데리고 온 새로운 여자 이야기.

00:07:50.216 --> 00:07:54.147  
이런 과거의 이야기와  
현실의 이야기가

00:07:54.172 --> 00:07:59.434  
중층적으로 함께 짜여 있다고  
하는 것이죠.

00:07:59.694 --> 00:08:03.067  
그러니까 그 기억의 자리라고  
하는 것이

00:08:03.092 --> 00:08:06.780  
오늘 현실과 상호 조응하는  
이 구조적 맥락이

00:08:06.805 --> 00:08:11.426  
이 소설에 입체감을  
부여하는 것입니다.

00:08:11.820 --> 00:08:18.941  
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설이  
가지고 있는 신경숙만 쓸 수 있는

00:08:18.966 --> 00:08:21.401  
새롭고 섬세한 문체.

00:08:21.426 --> 00:08:27.146  
특히 이 소설의 도입 부분을 보면  
먼 산에 단풍이 드는 것을

00:08:27.424 --> 00:08:29.360  
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

00:08:29.996 --> 00:08:34.799  
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 
화장이 얼룩덜룩해지는.

00:08:38.640 --> 00:08:46.744  
zoom in, 가까이 당겨서 그 상황을  
사람의 얼굴로 치환해서 보여주는

00:08:46.769 --> 00:08:51.133  
이런 글쓰기의 섬세하고  
감성적인 기법.

00:08:51.361 --> 00:08:54.318  
이런 것들이 소설을 일관해서

흘러가고 있다, 이 말이죠.

00:08:54.343 --> 00:08:59.043  
그러니까 문체만으로도 읽을 만한  
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,

00:08:59.068 --> 00:09:00.694  
이런 뜻입니다.

00:09:01.790 --> 00:09:05.724  
풍금이 있던 자리에 등장하는  
사랑의 문체는

00:09:07.173 --> 00:09:11.373  
나와 당신, 이 두 사람의 관계인데

00:09:11.424 --> 00:09:14.569  
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 
나와 그 여자.

00:09:14.594 --> 00:09:16.411  
아버지가 데리고 왔던 그 여자.

00:09:16.436 --> 00:09:20.636  
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 
과거 어린 시절의 문체.

00:09:20.758 --> 00:09:22.273  
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

00:09:22.470 --> 00:09:27.970  
그 여자가 내게 했던 말,  
작중 화자에게 했던 말.

00:09:27.995 --> 00:09:31.336  
나처럼은 되지 마라고 했던 그 말.

00:09:31.889 --> 00:09:37.148  
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 
그 여자에 대한 모방 욕망을

00:09:37.173 --> 00:09:39.168  
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

00:09:39.482 --> 00:09:45.449  
마치 풍금이 있던 자리로  
존재하는 것처럼.

00:09:45.474 --> 00:09:49.096  
그러니까 풍금 그 자체가 아니라  
그 자리로 존재하는 것처럼

00:09:49.121 --> 00:09:53.676  
그 여자도 지금 작중 화자에게는  
실체가 아니라

00:09:53.827 --> 00:09:58.543  
그런 이미지로, 그런 기억으로  
또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.

00:09:59.034 --> 00:10:02.575

그리고 이것이 밀도 있게  
함께 진행되면서

00:10:02.600 --> 00:10:07.299  
이 소설이 읽을 만한 소설이 되었다,  
이런 얘기입니다.

00:10:08.571 --> 00:10:12.435  
신경숙이 많은 여성 팬들을  
가지게 되었던 것도

00:10:12.460 --> 00:10:16.081  
이 풍금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  
소설의 출현과 맞닿아 있고

00:10:16.702 --> 00:10:23.069  
이 작품이 불륜을 소재로 해서  
대중적 매체의 속성을

00:10:23.094 --> 00:10:27.557  
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혹평을  
피하기는 어렵지만

00:10:28.172 --> 00:10:33.934  
오히려 통속적으로  
보이는 것과는 달리

00:10:34.279 --> 00:10:40.167  
이 소설의 문체나 이야기 구조가  
잘 만들어진.

00:10:40.736 --> 00:10:42.039  
항아리를 잘 만들었을 때

00:10:42.064 --> 00:10:45.291  
우리가 그 항아리를 전체적으로  
바라보는 것처럼

00:10:45.316 --> 00:10:50.462  
잘 만들어진 항아리 같은  
이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.

00:10:52.102 --> 00:10:55.562  
신경숙 소설이 왜 이렇게 했느냐?

00:10:55.587 --> 00:11:00.016  
이 문제를 다시 한번  
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죠.

00:11:00.212 --> 00:11:03.869  
페미니즘 시각에서  
여성주의자들이 볼 때는

00:11:03.894 --> 00:11:08.855  
신경숙의 소설에 문제가 있지만  
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,

00:11:08.880 --> 00:11:12.604  
특히 여성들에게  
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

00:11:13.766 --> 00:11:23.297  
이런 신경숙이 하고 있는  
소설적 이야기 구조의 성립 과정.

00:11:23.738 --> 00:11:25.378  
조작이랄까?

00:11:25.403 --> 00:11:29.871  
여기에 그 당대 여성들의  
내재적 욕망 같은 것이

00:11:29.896 --> 00:11:32.205  
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.

00:11:32.230 --> 00:11:40.164  
그래서 소설과 당대 여성들의 의식을  
함께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는

00:11:40.189 --> 00:11:42.371  
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11:43.720 --> 00:11:48.326  
독자들은 여성학 강의보다  
신경숙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

00:11:48.351 --> 00:11:50.123  
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.

00:11:50.971 --> 00:12:02.096  
이 소설에 빠지는 것은 정말 의식을  
스포일, 오염되게 하는 나쁜 것이지만

00:12:02.121 --> 00:12:08.906  
한번 빠져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 
추동하는 소설적 이야기.

00:12:09.727 --> 00:12:18.003  
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은  
그 기반이 허약하다 할지라도

00:12:18.320 --> 00:12:23.013  
우리 삶에 존재하는  
매우 생생한 문제라는 것이죠.

00:12:23.451 --> 00:12:27.335  
사랑을 다루었다는 그 자체는  
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.

00:12:27.360 --> 00:12:31.829  
다만 그러한 사랑의 문제가  
또 여성의 사랑이

00:12:31.854 --> 00:12:35.642  
현실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 
이런 얘기죠.

00:12:35.832 --> 00:12:40.160  
신경숙의 소설들은 어디로 떠나는  
여행의 문제

00:12:40.185 --> 00:12:43.258

또는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는  
추억의 문제

00:12:43.962 --> 00:12:49.684

이런 것들로 이룰테면  
현재 진행형이 아닌

00:12:49.709 --> 00:12:54.612

과거 회상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 
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

00:12:54.637 --> 00:12:56.941

이런 슬픔을 내포하는 것인데

00:12:57.242 --> 00:13:01.442

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 
수용함으로써

00:13:01.650 --> 00:13:05.005

현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위안을  
얻는 것

00:13:05.030 --> 00:13:07.311

이것이 신경숙의 소설이고

00:13:07.336 --> 00:13:12.006

다시 말해서 1990년대의  
이념 중심의 시대가

00:13:12.031 --> 00:13:16.947

개인적 다양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 
시대로 바뀌었을 때

00:13:16.972 --> 00:13:23.043

많은 사람의 내면적 정서에  
울림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,

00:13:23.068 --> 00:13:25.101

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.